

서울대 일본연구소 제13회 연구집담회

음악, 라디오 그리고 프로파간다 - 나치제국의 방송음악정책

일시: 2010년 4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장소: 국제대학원 GL룸

사회자: 박정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발표자: 이경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자: 서재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 발표내용 ◆

앞으로 일본제국의 문화, 방송 등에 대해 연구하려 하는데 오늘의 발표는 그 선행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

#1 전쟁말기 폐허의 독일: 바그너 음악. 실제 당시에 폭격을 피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함

#2 1942년 베를린필의 공장 내 공연

#3 베를린방송국 전경; 아카이브 전경

독일의 음악방송비율: 1933년 57.4% -> 1943년 90% 수준까지 증가.

BBC방송과 비교하면, 순수언어프로그램은 70%를 차지.

적극적인 라디오수신기의 보급:

일본의 경우, 1932년 142만명 -> 1944년 700만(50%)

독일의 경우, 1932년 416만 -> 1941년 1600만; 1936년 올림픽 당시 가구 전체의 50%

보급. 저렴한 '민족의 수신기'(VE-301), 괴벨스가 저가로 보급; DKE38(독일형 소형수신기: 35제국마르크)

괴벨스: 기존에는 라디오에 대한 회의(라디오의 속물성) -> 1933년부터 수신기 보급에 열을 올림.

1933년 3월 13일 선전부 장관 -> 7/8월 전국방송 통합(* 1924년 8개 방송국이 개국) -> 9월 22일 제국문화원 설립 -> 1934년 4월 1일 국영방송으로 전환.

라디오의 프로파간다적 가치

(1) 단일여론 형성: "민족의 시간"(1933~35). 공동/집단청취(학교, 직장, 이웃공동체). 히틀러 연설 5600만 청취(1935년).

#4 "전국민이 지도자의 목소리를 듣는다"(1936년 프로파간다 포스터)

* 괴벨스: "지루해서는 안 되고 삭막해서도 안 되고 의도를 노출시켜서도 안 됨"

(2) 독일 민족공동체의 우월한 음향적 이미지(과시도구): 일본제국, 스탈린 역시 클래식을 국가적 음악으로 활용. 독일의 경우, 클래식은 독일 전통음악이자 정통문화. 1934년 바그너, 베토벤 음악축제가 전 세계(20여개국)에 생중계됨.

(3) 전쟁도구: 1942년 3월부터 단일프로그램. 1943년 해외단파방송 100방향, 53개국어. 1943년 3월부터 1945년 2월까지, 독일과 일본이 대미국 프로파간다 방송을 교환함. 명랑함. “문화적 건설을 시도”한다고 주장(<제국방송>, 프리츠 슈테케, 1943).

“독일군의 성공적 보도에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 방송 언론 이외에 사람들은 전장으로부터의 편지, 군인들과의 얘기에 강하게 의존한다”(SD보고서, 1941.8.25).

* 17권 정도의 자료집이 나와있음.

“연합군의 폭격에 완전히 맘이 무거운 상태였는데, 쾰른 방송국에서 ”나는 그대와 춤추며 천국으로 가리“라는 유행가를 내보내고 있었다. 마치 우리 청취자를 비웃는 듯했다”(1943년 SD보고서).

* 재즈는 금지시켰지만, 스윙음악은 금지하지 않음(‘명랑’을 위하여).

나치 방송음악 정책의 특성

(1) 프로파간다는 최고의 예술이라는 인식. “독일민족은 음악적으로 뛰어나다”는 주장. 라디오매체와 잘 맞는 문화선전방식. ‘독일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나치’를 주장.

(2) 나치즘,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모던의 기술, 반모던의 이데올로기(피와 땅)

질문: 아우슈비츠와 살인공장, 그 주변에서는 음악회, 코미디연극 등이 있었음.

- 과연 나치즘은 어떤 체제였을까?

◆ 토론자 토론내용(서제길) ◆

1. 라디오방송에서 ‘음악의 과잉공급’(1943년 90% 수준 육박): 전체방송에서의 비율인지 오락방송에서의 비율인지? 일본에서는 음악방송이 하루에 1시간 정도(1938년).

2. 수신기 가격과 대중의 구매력: 나치의 염가정책에 대해 확인이 필요. <라디오연감>을 보면 독일은 인구당 7%(가구단위로 환산하면 큰 단위). 마르크 단위 및 상품가격의 비교지표 필요. 박태원 <천변풍경>에서 식민지 조선의 1930년대 초반 라디오 가격 정보가 있음. 영화가 대중적 미디어였고, 라디오와 유성기는 접근성이 낮은 미디어였음.

3. 라디오보급률의 가파른 상승과 그 이유: 그 이유는 나치즘의 집권인가? 라디오라는 새로운 매체가 갖는 의미의 현격한 변화?(1925 vs 1933)

4. ‘공동체적 청취’ vs ‘집단적 소비’: 요시미(동경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주제로 논문을 쓴 것이 있음.

5. 청취자 통계의 의미: 청취자 기호조사는 일본, 조선에서는 있었는데, 청취자 통계라는 것이 가능했나? 그런 지표를 확인할 수 있나?

6. '생방송'과 괴벨스의 검열 문제: 실제로는 날방송(생방송)과 녹음방송만이 존재했음.

7. 대중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방송국이 내보내는 음악 간의 괴리. 이념성을 강조하면 대중성이 약화, 그 역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 둘을 조화시키려 했는지? 클래식은 미디어이벤트로서 국민형성기제가 아니었을까?

8. 라디오드라마: BBC는 셰익스피어 / NHK는 가부키 / 식민지 조선은 기생들의 노래, 민요 등이 인기. 민족적/민속적 전통의 재발견. 모더니즘 자체가 전통적인 것 자체를 자신의 맥락 안에서 재배치하는 것.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민속적 오락음악'이란? 독일에서 '민속적 오락음악'이란 클래식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

◆ 답변 ◆

8. '민속적 오락음악'의 실례: 바이에른 민속음악. * 발표자가 한국의 아마추어 합창문화 진흥을 위해 연구하던 중, 독일의 사례를 알게 됨. 1937년 이후 현대예술, 음악, 미술에 대해 박멸, 금지의 정책을 폈음. 이걸 봉건적인가?

1. 매주 전체 180시간 가운데 90%가 음악이었음.

2. 안익태는 1회 지휘에 500제국마르크; 유명한 지휘자는 2000제국마르크를 받음. 철도직원의 경우 한달 월급이 300제국마르크였다고 함. 매달 라디오 수신료는 2제국마르크. 수신기는 79제국마르크 -> 59제국마르크 -> 37제국마르크. 월부판매도 했음.

3. 대중화 자체는 나치시대. 저렴한 수신기 정책. 1933년이 중요. VE301. cf: 바이마르정부 시대에는 BBC와 비슷. 수신기는 소수가 보유했기 때문. 프로그램이 다양.

4. 올림픽의 집단적 감격. 라디오를 통해 가능. 손기정 선수 라디오 중계도 마찬가지. 초기, 독일 문화엘리트들 안에서는 신문 등 활자에 익숙, 새로운 매체인 라디오나 영화에 대해 회의적, 부정적(부르주아의 속물적 매체로 인식).

5. 히틀러 연설의 청취자 통계자료는 인용한 것이지 발표자가 연구한 것은 아님. '민족의 시간'에서 히틀러가 연설했을 때, 듣는 측의 통계가 잡힌 것으로 보임. 기존연구를 인용한 것이어서 정확한 추적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디오의 파급력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 히틀러는 정치가라기보다는 아이콘이었음.

6. '소망콘서트'는 생방송이었는데, 괴벨스가 직접 간섭했음. 군인가족 대상의 방송. 사전 리허설을 다 계획, 검토함. 괴벨스는 프로파간다를 예술로 생각. 나치당 간부가 연설을 하면

프로파간다가 실패한다고 생각하여, 사전에 콘트롤하려 했음.

7. 클래식음악은 소수였고, 오락음악이 대다수였음. 음악은 생(生)에의 의지와 희망을 부여하는 수단, 도구였음. 패전까지 오케스트라 100명이 지속적으로 남아 음악공연을 함. 베토벤 9번이 일본에서도 국가음악으로 사용됨. 클래식은 국가의례와 많이 연관됨. 바그너축제. 바그너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 대중이 접근하지 못했는데, 1943년 이후 동부전선에서 온 군인(부상자)과 노동자를 기차로 초빙해서 들려주는 정책도 펴. 재즈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는 금지했으나, 전선의 군인 대상의 방송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해 재즈를 틀어주기도 했음.

◆ 토론자 추가질문 ◆

1. 잡지 <방송> <방송연구> <목록집> 등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 그 자료를 보면 방송정책 교류사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2. 일차자료 검증의 문제; 비판적 자료독해의 필요성; 청취자통계의 성격에 대해 자세한 자료비판이 필요. 과잉해석된 자료를 비판적 해석을 통해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3. 나치즘이었기 때문에 라디오보급이 크게 확대되었나,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었나? 값싼 수신기의 보급은 기술적 혁신, 발전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독일과 일본 간의 비교가 필요. 조선과 비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음. 1937년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방송국이 다수 설립됨. 지역 KBS방송국 자리는 일제시대 말기에 건설된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임. 나치즘의 정책을 수신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답변) 역시 기술발전의 힘이 컸음. 1938년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합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청취자수의 확대가 있었던 점도 있음. 그래도 괴벨스의 정책, 업자에 대한 설득 등이 주요한 것이었다고 봄. 추후 일본과 비교검토를 통해 연구를 심화시킬 예정.

◆ 플로어 질문 ◆

(임채성) 1930년대 전반 나치스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듯. 베르사이유협정과 엄청난 배상금. 나치스의 새로운 정책과 국민들의 환영. 세계대공황에 대한 탈출에서 독일과 일본이 빠르게 회복. 아우토반, 폭스바겐, 라디오, 주택 등의 보급. 대중소비가 계획경제 하에서 급속히 확대되었음. 이러한 것이 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90%의 음악방송. 총동원체제를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는 방식에서 다른 나라와 특이한 방향을 선택. 오락성을 가미하여 동원. 과연 그렇다면 다른 사례(나라)의 경우, 라디오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동원해냈는지,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갔는지?

(이은경) 전쟁기에 동원하기 위해 프로파간다 등 수단을 쓰는 것은 일반적. 음악이 지니는 특수성이나 특징은 무엇이었나? 왜 독일인에게 음악인가? 코멘트, 설명이 들어간 음악이었

는지, 아닌지? 음악방송의 실제 진행내용, 특징은 무엇? 전후에 전쟁경험에 대한 저항으로서 독일음악에 대한 터부, 금기 등이 있었나? 반나치 및 나치탈피의 의미에서.

(한영혜)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멋진 독일장교의 모습이 떠올랐음. 나치스에 침병이자 예술가. 프로파간다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 괴벨스가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수용자, 대상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연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의미가 있었는지? 괴벨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음.

(남기정) 나치즘이 모더니즘이나 반모더니즘이나, 모더니티즈(modernities)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것이 어떤가? 일상 속의 나치즘, 독재라는 문제설정에서 볼 때, 음악이 저항의 근거지이자 동원의 핵심지대일 수 있지만, 그 사이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문명과 야만은 대립이라기보다는 공범적 성격. 이 점에 대해 좀 더 착목시켜 논의해주시면 더 재미있을 듯.

◆ 답변 ◆

1. 괴벨스의 정책은 'give and take'의 성격도 있었음. 통제에 대해 반대급부를 제공. 히틀러의 선전정책은 괴벨스, 로젠베르크, 레이 등이 경쟁하는 구도.
2. 음악 90% 방송에서 코멘트는 없었음. 중간중간에 뉴스를 넣음.
3. 전후에 좌파는 팝과 재즈를 들으면서 스스로 진보라고 표상. 클래식은 보수적, 내셔널리즘이라는 표상이 결합됨. 알레르기가 있는 편.
4. 음악행위자의 입장. 괴벨스는 재즈음악을 좋아함. 히틀러는 베토벤 음악보다 안톤 브루크너(오스트리아) 음악을 좋아함. 괴벨스는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했음. 김열한다고 하면서 영화를 즐김.
5. 회색지대론. 일상의 파시즘. 야만과 문명의 관계. 나치의 남성성, 행진과 깃발이라는 표상장치. 특히 여성들에게 파시즘이 어필했던 이유. 상징과 표상의 문제.

<끝>